



RICON 건설경기실사지수 (SC-BSI)

이은형 (연구위원, eunhyung@ricon.re.kr, 02-3284-26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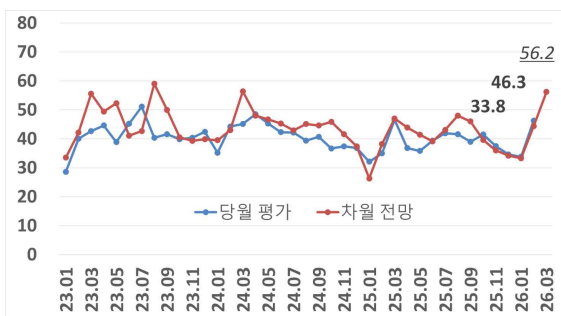
I. 2026년 2월 건설경기평가 및 2026년 3월 전망

■ 2월의 경기평가는 상승, 차월도 지속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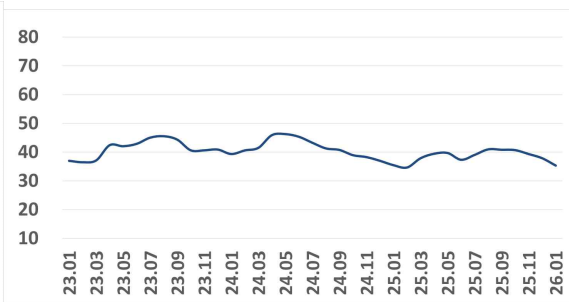
- 2월의 건설경기실사지수는 46.3으로 전월(33.8)보다 상승했으며(+12.5p), 전년 동월(35.0)보다도 높았음(+11.3p). 차월(56.2)에도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9.9p) 이는 연초에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공사 발주가 증가할 것에 대한 기대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음. 경영애로사항으로 종전과 달리 지적된 것은 없었음.
- 수도권은 50.0(28.3→50.0)으로 전월보다 크게 높았지만(+21.7p), 지방은 44.7(36.7→44.7)로 소폭 상승한 것에 그쳤음(+8.0p).

〈표-1〉 2026년 2월 건설경기실사지수 평가 및 2026년 3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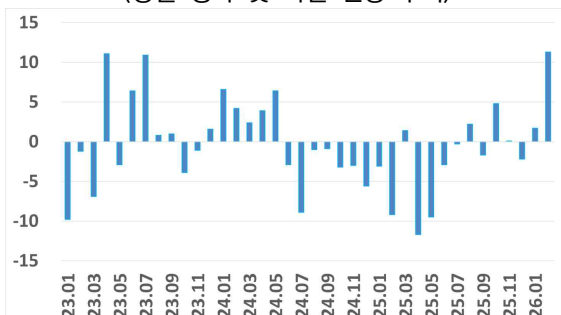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2026년 2월 평가	46.3	35.0	50.0	44.7	34.5	58.6
2026년 3월 전망	56.2	47.0	62.5	53.5	44.8	67.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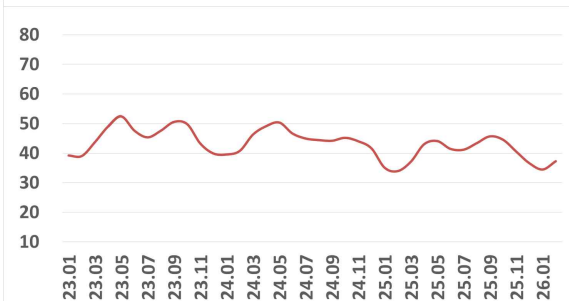
〈당월 평가 및 차월 전망 추이〉



〈당월 평가의 이동평균선(3개월)〉



〈전년 동월 대비 증감(당월 평가)〉



〈차월 전망의 이동평균선(3개월)〉

II. 전문건설업 조사항목별 경기평가 및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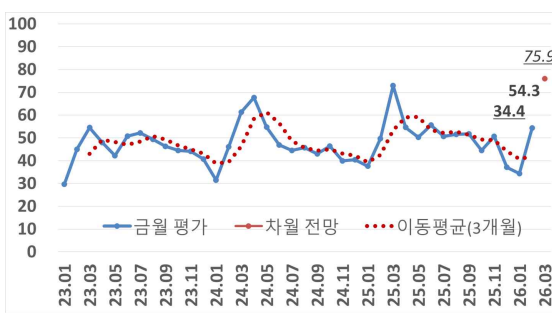
1 공사수주지수 (원도급, 하도급)

■ 공사수주지수는 원도급과 하도급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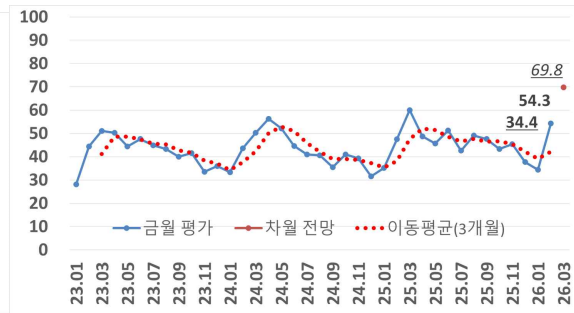
- 공사수주 경기실사지수는 원도급수주가 54.3(34.4→54.3)으로 상승했으며(+19.9p) 전년 동월(49.7)보다도 소폭 높았음(+4.6p). 하도급수주도 54.3(34.4→54.3)으로 전월보다 크게 상승함(+19.9p). 이는 연초라는 계절적 요인과 함께 지방의 건설경기가 수도권과 비교해 저조하다는 현황이 조사결과에 반영된 것임.
 - 원도급 공사수주지수는 수도권(55.6→83.3)에서 크게 상승했으며(+27.7p), 지방(25.5→42.1)은 수도권보다 낮은 수준의 상승을 보였음(+16.6p).
 - 하도급 공사수주지수도 수도권(66.7→95.8)의 상승폭이 컸으며(+29.1p). 지방(20.8→36.8)도 상승함(+16.0p).

〈표-2〉 원·하도급 공사수주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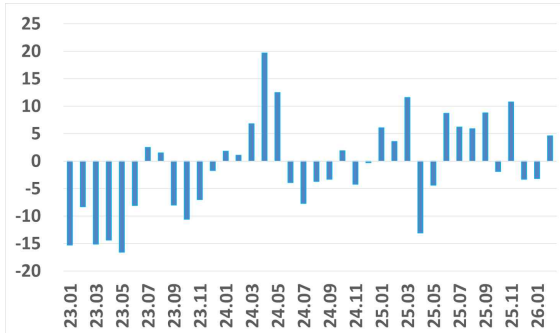
구분	구분	총합		지역			
		금월 (전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원도급 수주	2026년 2월 평가	54.3	49.7	83.3	42.1	82.8	58.6
	2026년 3월 전망	75.9	72.1	93.8	68.4	93.1	79.3
하도급 수주	2026년 2월 평가	54.3	47.5	95.8	36.8	106.9	50.0
	2026년 3월 전망	69.8	61.2	85.4	63.2	86.2	7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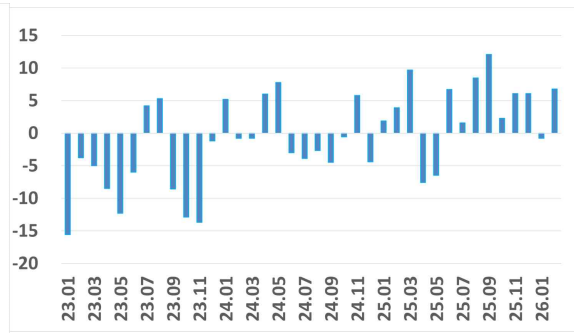
〈원도급 수주〉



〈하도급 수주〉



〈원도급 수주 증감(전년 동월비)〉



〈하도급 수주 증감(전년 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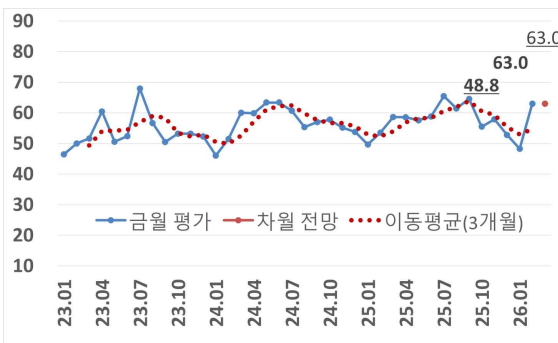
2 자금관련지수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 공사대금수금지수와 자금조달지수 모두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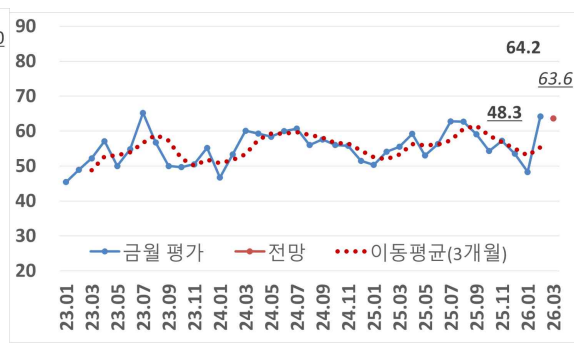
- 공사대금수금 경기실사지수는 63.0(48.3→63.0)으로 전월보다 개선되었으며(+14.7p), 차월(63.0)에도 유사한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0.0p). 이번 조사에서도 일부 응답업체들은 수주경쟁의 심화와 함께 민간공사의 미수금 문제를 지적함.
 - 수도권(57.8→83.3)은 전월에 이어 상승(+25.5p), 지방(44.3→54.4)도 상승함(+10.1p).
- 자금조달 경기실사지수는 64.2(48.3→64.2)로 상승함(+15.9p), 이는 전년 동월(54.1)보다 높으며(+10.1p), 차월(63.6)에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전망됨(-0.6p). 다만 일부에서는 공사물량의 감소가 자금 조달 부담의 경감으로 응답에 반영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 수도권(64.4→91.7)은 크게 상승(+27.3p), 지방(41.5→52.6)도 상승함(+11.1p).

〈표-3〉 공사대금수금 및 자금조달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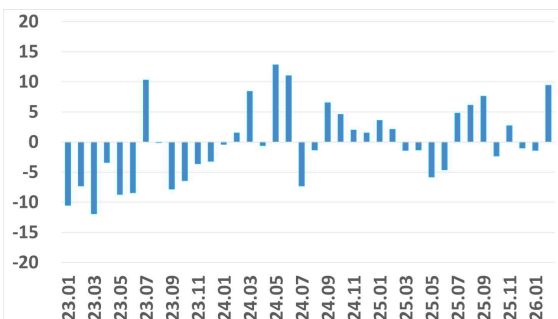
구분	구분	총합		지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공사대금수금	2026년 2월 평가	63.0	53.6	83.3	54.4	79.3	75.9
	2026년 3월 전망	63.0	62.8	81.3	55.3	82.8	69.0
자금조달	2026년 2월 평가	64.2	54.1	91.7	52.6	93.1	74.1
	2026년 3월 전망	63.6	60.1	81.3	56.1	82.8	7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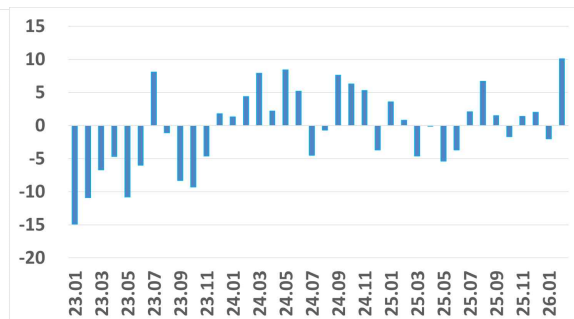
〈공사대금수금〉



〈자금조달〉



〈공사대금수금 증감(전년 동월비)〉



〈자금조달 증감(전년 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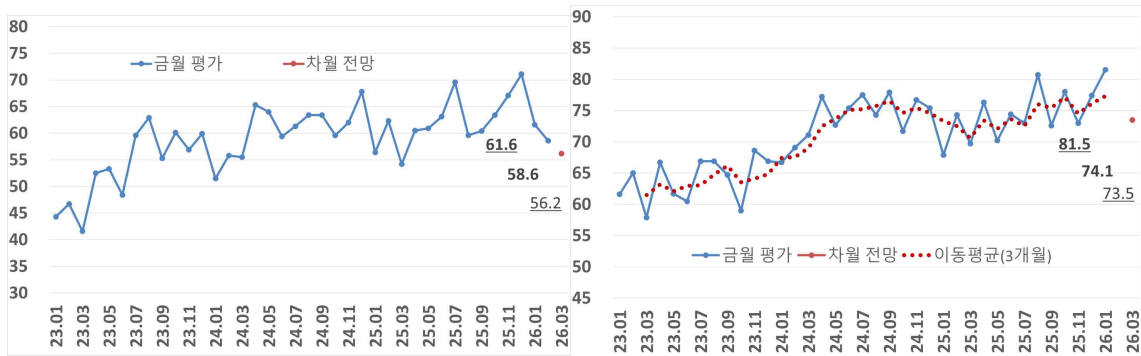
3 건설기능인력 관련 지수 (인건비, 인력수급)

■ 인건비체감과 기능인력수급은 모두 하락

- 인건비체감¹⁾ 경기실사지수는 58.6(61.6→58.6)으로 전월 대비 소폭 하락함(-3.0p). 이는 근래의 조사결과와 달리 전년 동월(62.3)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3.7p), 이번 조사에서도 상당수의 응답업체가 인건비 상승문제를 지적함.
 - 수도권(60.0→54.2)은 전월에 이어 하락(-5.8p), 지방(62.3→60.5)도 하락함(-1.8p).
- 기능인력수급 경기실사지수는 74.1(81.5→74.1)로 하락했으며(-7.4p), 전년 동월(74.3)과 유사한 수준이었음(-0.2p). 금월에도 기술인력의 수급난과 노조 관련 문제가 부각됨.
 - 수도권(68.9→72.9)은 소폭 상승(+4.0p), 지방(86.8→74.6)은 하락함(-12.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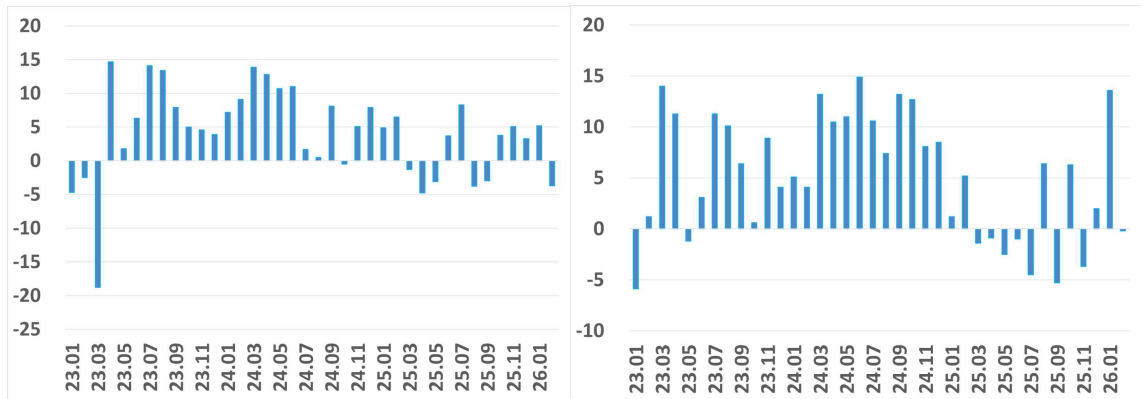
〈표-4〉 인건비 및 기능인력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분	구분	총합		지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인건비 체감	2026년 2월 평가	58.6	62.3	54.2	60.5	41.4	75.9
	2026년 3월 전망	56.2	54.6	54.2	57.0	34.5	72.4
인력수급	2026년 2월 평가	74.1	74.3	72.9	74.6	65.5	93.1
	2026년 3월 전망	73.5	69.9	66.7	76.3	51.7	94.8



〈인건비 체감〉

〈인력수급〉



〈인건비 체감 증감(전년 동월비)〉

〈인력수급 증감(전년 동월비)〉

1) 기능인력을 채용하는 기업들이 체감하는 인건비 수준의 체감도(개선 또는 악화)를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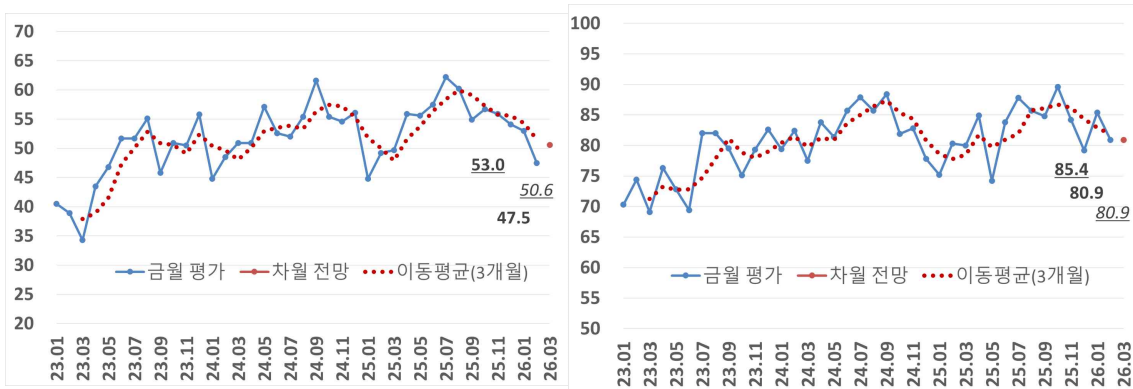
4 건설자재 관련 지수 (자재비, 자재수급²⁾)

■ 자재비지수와 자재수급지수는 하락

- 자재비³⁾ 경기실사지수는 47.5(53.0→47.5)로 전월 대비 하락했지만(-5.5p). 차월(50.6)에는 소폭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3.1p). 지역별 체감도는 꾸준히 심화되는 양상을 보였음.
 - 수도권(51.1→50.0)은 전월과 유사(-1.1p), 지방(53.8→46.5)은 하락함(-7.3p).
- 자재수급 경기실사지수는 80.9(85.4→80.9)로 전월 대비 하락했으며(-4.5p), 차월(80.9)에도 같은 수준일 것으로 전망됨(+0.0p). 다만 자재수급 문제를 부각한 응답업체는 없었음.
 - 수도권(77.8→77.1)은 전월과 유사(-0.7p), 지방(88.7→82.5)도 하락함(-6.2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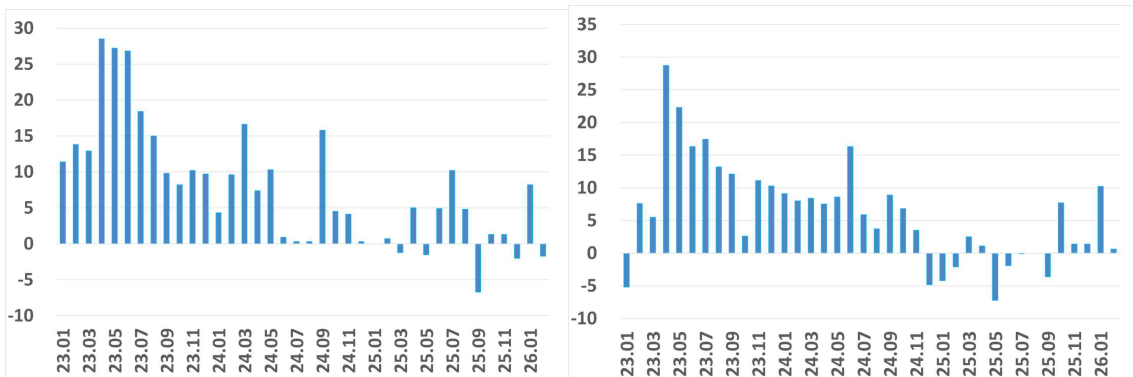
〈표-5〉 자재비 및 자재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자재비 체감	2026년 2월 평가	47.5	49.2	50.0	46.5	34.5	60.3
	2026년 3월 전망	50.6	49.7	52.1	50.0	37.9	65.5
자재수급	2026년 2월 평가	80.9	80.3	77.1	82.5	65.5	100.0
	2026년 3월 전망	80.9	79.2	72.9	84.2	55.2	100.0



〈자재비 체감〉

〈자재수급〉



〈자재비 체감 증감(전년 동월비)〉

〈자재수급 증감(전년 동월비)〉

2) 통상적으로 자재수급지수는 타 항목의 지수보다 높음(코로나 이전 시기의 지수는 대략 100정도 수준이었음).
 3) 기업들이 구매하는 자재비의 체감수준(개선 또는 악화)을 의미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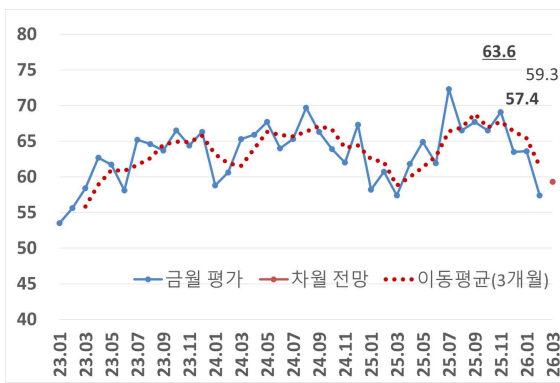
5 건설장비 수급지수 (장비임대료, 장비수급)

장비임대료지수와 장비수급지수는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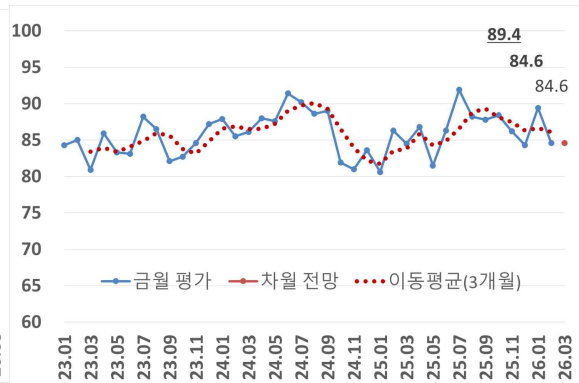
- 장비임대료 경기실사지수는 57.4(63.6→57.4)로 전월 대비 하락했으며(-6.2p), 차월(59.3)에도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전망됨(+1.9p). 장비임대료의 경우에는 최근 경유가격 상승 등과 직결되므로 지금으로서는 국내 경제의 전반적인 상황과 맞물려 변동할 여지가 큼.
 - 수도권(64.4→56.3)은 하락(-8.1p), 지방(63.2→57.9)도 하락함(-5.3p).
- 건설장비수급 경기실사지수는 84.6(89.4→84.6)으로 소폭 하락했으며(-4.8p), 차월(84.6)에도 동일한 수준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0.0p).
 - 수도권(80.0→81.3)은 전월과 유사(+1.3p), 지방(93.4→86.0)은 하락함(-7.4p).

〈표-5〉 건설장비수급 지수 (금월 평가와 차월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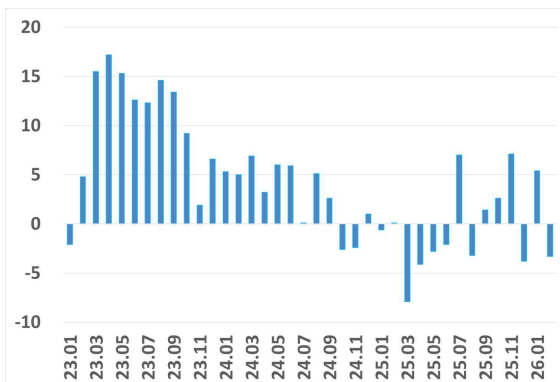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장비 임대료 체감	2026년 2월 평가	57.4	60.7	56.3	57.9	41.4	74.1
	2026년 3월 전망	59.3	58.5	60.4	58.8	41.4	79.3
장비수급	2026년 2월 평가	84.6	86.3	81.3	86.0	69.0	103.4
	2026년 3월 전망	84.6	79.2	77.1	87.7	62.1	10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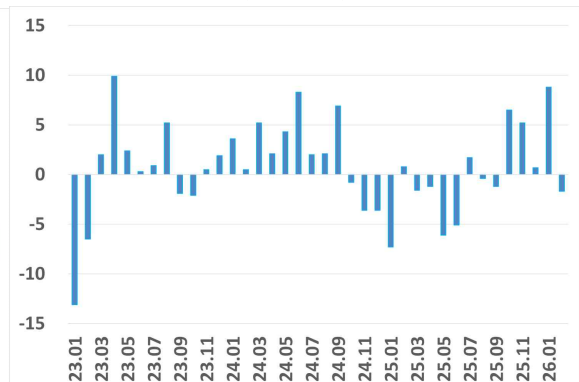
〈장비임대료 체감〉



〈장비수급〉



〈장비임대료 체감 증감(전년 동월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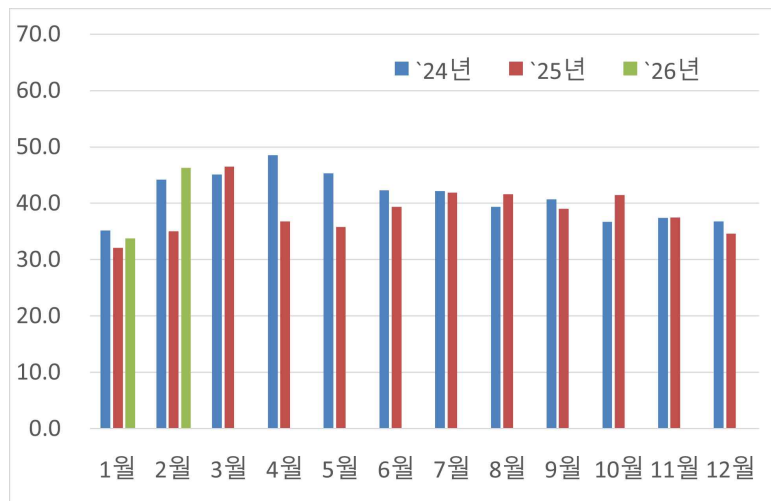
〈장비수급 증감(전년 동월비)〉

참고: 2026년 2월 전문건설업 경기실사지수 요약표

구 분		총 합		지 역				
		금월	전년 동월	수도권	지방	서울	광역시	
전문건설업 경기	금월 평가	46.3	35.0	50.0	44.7	34.5	58.6	
	차월 전망	56.2	47.0	62.5	53.5	44.8	67.2	
공사물량	원도급 수주	금월 평가	54.3	49.7	83.3	42.1	82.8	58.6
		차월 전망	75.9	72.1	93.8	68.4	93.1	79.3
	하도급 수주	금월 평가	54.3	47.5	95.8	36.8	106.9	50.0
		차월 전망	69.8	61.2	85.4	63.2	86.2	75.9
자금사정	공사대금 수금	금월 평가	63.0	53.6	83.3	54.4	79.3	75.9
		차월 전망	63.0	62.8	81.3	55.3	82.8	69.0
	자금조달	금월 평가	64.2	54.1	91.7	52.6	93.1	74.1
		차월 전망	63.6	60.1	81.3	56.1	82.8	70.7
건설 기능인력	인건비 체감	금월 평가	58.6	62.3	54.2	60.5	41.4	75.9
		차월 전망	56.2	54.6	54.2	57.0	34.5	72.4
	인력수급	금월 평가	74.1	74.3	72.9	74.6	65.5	93.1
		차월 전망	73.5	69.9	66.7	76.3	51.7	94.8
건설자재	자재비 체감	금월 평가	47.5	49.2	50.0	46.5	34.5	60.3
		차월 전망	50.6	49.7	52.1	50.0	37.9	65.5
	자재수급	금월 평가	80.9	80.3	77.1	82.5	65.5	100.0
		차월 전망	80.9	79.2	72.9	84.2	55.2	100.0
건설장비	장비임대료 체감	금월 평가	57.4	60.7	56.3	57.9	41.4	74.1
		차월 전망	59.3	58.5	60.4	58.8	41.4	79.3
	장비수급	금월 평가	84.6	86.3	81.3	86.0	69.0	103.4
		차월 전망	84.6	79.2	77.1	87.7	62.1	101.7

주1: '전체' 지수는 '수도권'과 '지방'을 합산해서 산출.

주2: '광역시'는 6대 광역시(부산·대구·인천·광주·대전·울산).



〈최근 3년간의 SC-BSI 비교〉